

2026 군무원 9급 국어

응시번호 _____ 성명 _____

점수 _____ 점

1. 단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덜개’는 합성어이다.
- ② ‘먹이다’는 파생어이다.
- ③ ‘손수건’은 파생어이다.
- ④ ‘꽃사과’는 합성어이다.

1

해설 ② [이론 문법]

‘먹이다’는 동사 어간 ‘먹-’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므로,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덜개’는 파생어이다. 동사 어간 ‘덜-’에 명사 파생 접미사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 ③ ‘손수건’은 합성어이다. 명사 ‘손’과 ‘수건’이 각각 어근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 ④ ‘꽃사과’는 파생어이다. 접두사 ‘꽃-’이 명사 어근 ‘사과’에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2.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쓰임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수하지 않게 눈 똑바로 뜨고 일해라.
- ② 잠시 눈을 붙였다더니 몸이 한결 나아졌다.
- ③ 동생은 눈에 모를 세운 친근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 ④ 생일을 맞아 눈 딱 감고 비싼 선물을 준비했다.

2

해설 ③ [고유어, 순화어, 관용어]

‘눈에 모를 세우다’는 성난 눈매로 노려볼 때 쓰는 관용 표현이다. 문맥상 ‘친근한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다. 참고로 화가 나서 날카롭게 쏘아보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눈에 불을 켜다’ 또는 ‘눈에 쌍심지를 켜다’와 유사한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눈 똑바로 뜨고’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라는 뜻으로, 실수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문맥에 적절하다.
- ② ‘눈을 붙이다’는 ‘잠깐 자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으로, 잠시 휴식을 취해 몸이 나아졌다는 문맥에 적절하다.

- ④ ‘눈 딱 감고’는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담하게 행동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큰맘 먹고 선물을 준비했다는 문맥에 적절하다.

3. 다음에서 설명하는 피동문 형성의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능동)
→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 (피동)

- ① 마을이 흰 눈으로 덮였다.
- ② 오늘은 추운 날씨가 풀렸다.
- ③ 나는 그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
- ④ 이 책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다.

3

해설 ② [이론 문법]

제시된 능동문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능동문의 목적어인 ‘열매를’이 피동문의 주어인 ‘열매가’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인 ‘나무가’가 ‘나무에’라는 부사어로 바뀌는 구조이다.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이다. 그러나 ②는 이러한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만들 수 없다. ‘날씨가 풀렸다’에서 ‘풀리다’는 자동사로 쓰였으며,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는 피동문 구성이 아니다. ‘날씨를 풀다’(X)

오답 피하기

- ① 능동문 ‘흰 눈이 마을을 덮었다’에서 목적어 ‘마을을’이 주어 ‘마을이’로 바뀌고 ‘눈이’가 ‘눈으로’로 바뀐 전형적인 피동문이다.
- ③ 능동문 ‘나는 그 소식을 믿지 않는다’에서 ‘소식’이 주어 ‘소식’으로 바뀌어 피동문이 된 경우이다.
- ④ 능동문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다’에서 ‘책’이 주어 ‘책은’으로 바뀌고 ‘사람들이’가 부사어 ‘사람들에게’로 바뀐 피동문이다.

4. 밑줄 친 외래어 표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일을 맞아 케이크(cake)를 준비했다.
- ② 관광지 안내용 팜플렛(pamphlet)을 제작하였다.
- ③ 동생은 달콤한 초콜릿(chocolate)을 무척 좋아한다.
- ④ 세계가 우리의 전통 콘텐츠(contents)에 공감하고 있다.

4

해설 ② [외래어, 로마자 표기] '팜플렛'(O)이 올바른 표기이다.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대높임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대우하여 말하는 등급으로 배우자와 같이 거리는 가까우나 격식적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쓴다.

- ① 이제 어디로 가시요?
- ② 철수야, 이리 와 보렴.
- ③ 아침부터 어디 다녀오세요?
- ④ 자네, 혼자서 할 수 있겠나?

5

해설 ① [이론 문법]

설명은 상대높임법 중 '하오체'이다. 하오체는 상대와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격식 있는 관계에서 사용하며, 배우자나 가까운 사이라도 격식 있는 예의를 지킬 때 주로 쓰인다. ①의 '가시요'는 하오체이다. 상대를 적절히 대우하며 격식을 차리는 상황에 적합하다.

오답 피하기

- ② '와 보렴'은 아랫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 친근하게 말할 때 쓰는 '해라체'이다.
- ③ '다녀오세요'는 상대방을 높이는 '해요체'로, 격식적 예의를 갖추되 상대가윗사람이거나 공적인 관계에서 주로 사용한다.
- ④ '자네'라는 호칭과 '~계나'라는 어미는 주로 '하계체'이다.

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랏 말쑥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
홀췌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ㅁ츨내 제 ㅼ들 시러 ㅼ디 ㅁ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 ㅎ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를 밍?노니 사
름마다 ㅎ여 수비 니겨 날로 ㅼ뭄에 便安키 ㅎ고져 ㅎ 썩
르미니라

- ① 새로운 문자 창제의 뜻을 알리고 있다.
- ② 새로 만든 문자는 28자로 이루어져 있다.
- ③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문자가 나타난다.
- ④ '어린 百姓'은 '나이가 적은 百姓'이라는 뜻이다

6

해설 ④ [고전 문법]

'어린'은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해례본에는 '愚(어리석을 우)'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새로 스물여들 字를 밍?노니'와 '便安키 ㅎ고져 ㅎ 썩르미니라'에서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목적과 뜻을 알리고 있다.
- ② '새로 스물여들 字를 밍?노니'에서 새로 만든 문자가 28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ㅎ(여린히울)', 'ㄷ(반치음)', 'ㅇ(엿이울)' 등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문자가 나타난다.

7. (가) ~ (다)의 뜻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로만 연결된 것은?

- (가)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큰 이익을 놓침.
- (나) 남의 말만 듣고 주체 없이 판단함.
- (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거나 실제로는 부드러움.

- ① (가) 견리망의(見利忘義)
(나) 이합집산(離合集散)
(다) 외강내유(外剛內柔)
- ② (가) 소탐대실(小貪大失)
(나) 부화뇌동(附和雷同)
(다) 외강내유(外剛內柔)
- ③ (가) 견리망의(見利忘義)
(나) 부화뇌동(附和雷同)
(다) 외강내유(外剛內柔)
- ④ (가) 소탐대실(小貪大失)
(나) 이합집산(離合集散)
(다) 외유내강(外柔內剛)

7

해설 ② [한자성어]

- (가) '소탐대실(小貪大失)'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도리어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 (나) '부화뇌동(附和雷同)'은 뚜렷한 주관 없이 남의 언행에 덩달아 휩쓸리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외강내유(外剛內柔)'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거나 속은 부드럽다는 뜻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견리망의(見利忘義)'는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는다는 뜻으로 (가)의 의미와 다르다. '이합집산(離合集散)'은 흩어지고 모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나)와 관련이 없다.
- ③ '견리망의(見利忘義)'는 (가)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이합집산(離合集散)'은 (나)의 설명과 맞지 않으며, '외유내강(外柔內剛)'은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하다는 뜻으로 (다)의 설명과 반대된다.

8. 다음 글의 밑줄 친 '동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 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중략)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 ① 인물이 장차 획득하게 될 막대한 부와 명예를 상징한다.
- ② 인물이 처한 고독한 처지와 현실적 삶의 무게를 상징한다.
- ③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매개체이다.
- ④ 과거의 평화로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매개체이다.

8

해설 ② [현대 문학]

'동전'은 구보가 소유하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대상이다. 구보는 동전을 보며 그것이 '행복'이 아님을 느낀다. '동전'은 고독한 내면을 지닌 주인공이 마주한 결핍된 현실과 그 삶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답 피하기

- ① 구보가 가진 동전은 소액에 불과하며, 막대한 부나 명예와는 거리가 멀다.
- ③ 이 장면에서 동전은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화해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 ④ 동전이 과거의 평화로운 시절을 환기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근거는 본문에 없다.

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의 주류 언어학은 의미전달을 위한 추상적인 구조로 언어를 이해한다. 즉 언어는 다양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들과 그 단어들을 의미 있게 구성하여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문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문법은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형태의 지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사용자는 한국어로 말할 때 문장에서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야 하는지, 문장 안에서 각 단어가 맡은 문법적 기능들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주류 언어학은 이러한 추상적인 지식의 구성원리를 밝혀냄으로써 한 언어가 어떻게 하나의 독립적인 체계로 기능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언어학은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대신, 언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근본적인 공간, 즉 인간들 사이의 사회관계에서 출발한다. 사회언어학에서 바라보는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무관한 추상적 구조가 아니라, 그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수단, 더 나아가 사회적 행동 그 자체인 것이다. 여기서 언어는 단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그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며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사회언어학은 이러한 사회적 행위로서의 언어에 초점을 맞춘다.

- ① 머릿속에 내재한 구조화된 문법이 출발점이다.
- ② 언어는 독자적인 존재로서 사람 사이의 관계와 무관하다.
- ③ 사람들 간의 소통을 조직하는 추상적인 기능이 본질이다.
- ④ 언어의 사회적 행위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9

해설 ④ [비문학]

제시문에서는 사회언어학이 언어를 단지 의사소통을 위한 추상적인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행동 그 자체로 본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언어의 사회적 행위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오답 피하기

- ①은 주류 언어학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언어학은 머릿속의 추상적 지식이 아닌 사회관계에서 출발한다.
- ②는 주류 언어학적 관점이다. 사회언어학은 언어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수단으로 파악한다.
- ③은 추상적인 구조를 강조하는 주류 언어학의 입장이다. 사회언어학은 추상적인 의미를 넘어선 사회적 행위로서의 언어이다.

10.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할√수√있다면√해√보아라.
- ② 그는√나를√도와줄수√없다.
- ③ 우리는√오늘√뿐만√아니라√내일도√만나다.
- ④ 그√일은√생각√한√바가√아니다.

10

해설 ① [띄어쓰기]

의존 명사 '수'는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한다. '해 보아라'에서 '해'는 본언이고 '보아라'는 보조 용언이다.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 ② '도와줄√수'로 고쳐야 한다. '수'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 ③ '오늘뿐만'으로 붙여 써야 한다. '뿐만'과 '만'은 모두 보조사이다.
- ④ '생각한√바가'로 고쳐야 한다. 여기서 '바'는 의존 명사이다.

11. 다음의 ‘형태소’에 대한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이다. 예를 들어, ‘바다’를 ‘바’와 ‘다’로 나눌 경우 ‘바’와 ‘다’가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바다’는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봄꽃’은 의미를 가진 ‘봄’과 ‘꽃’으로 나누어지므로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다.

- ① ‘집에 간다’의 ‘에’
- ② ‘국물이 식었다’의 ‘었’
- ③ ‘꽃이 예쁘구나’의 ‘구나’
- ④ ‘나는 학교에 갑니다’의 ‘니’

11

해설 ④ [이론 문법]

‘갑니다’는 ‘-닙니다’가 하나의 어미이다. ‘-닙니다’는 하십시오 할 자리에 쓰여, 현재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참고로 ‘갑니까’의 경우도 ‘-닙니까’가 하나의 어미이다.

오답 피하기

① 부사격 조사, ②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③ 종결 어미
참고로 ‘-구나’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며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1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적인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인간의 의사 결정은 이러한 이상적인 모델과는 거리가 있다.

인간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지적 한계를 지니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오류를 범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손실을 이익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주어졌을 때, 손실에서 느끼는 심리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손실 회피’로 불리며, 인간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보다는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빠르게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판단 방식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편향된 결론을 낳을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의사 결정은 합리적 계산의 결과라기보다, 제한된 인지 능력과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 ② 인간은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판단한다.
- ③ 손실은 이익보다 작게 인식된다.
- ④ 인간은 직관에 의존하여 판단하기도 한다.

12

해설 ④ [비문학]

글은 인간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글쓴이는 인간이 정보를 처리할 때 지니는 인지적 한계와 심리적 요인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복잡한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기보다는 효율성을 위해 직관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빠르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판단이 합리적 계산의 산물이라기보다 직관적인 통찰이나 과거의 경험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답 피하기

- ①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주장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설일 뿐, 실제 인간의 의사 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 ② 인간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인지적 한계를 지니며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보다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하는 ‘손실 회피’ 경향을 지니고 있다.

1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심에 싸인 그의 표정은 한없이 어둡기만 하였다.
- ② 이 곤욕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 ③ 이번 음악회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하였다.
- ④ 우리 경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13

해설 ② [문장다듬기, 어법]

‘곤욕스러운’은 ‘참기 힘든 모욕이나 욕됨’을 의미하는 ‘곤욕’에 ‘-스럽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문맥상 ‘곤혹스러운(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을 써야 할 자리에 잘못 사용되었다. ‘곤욕을 치르다’와 같이 쓰이는 ‘곤욕’은 심리적 곤란함과 의미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곤혹스러운’이 적절하다. ‘곤욕’과 ‘곤혹’은 사용하는 경우가 다르다. ‘곤욕’은 심한 모욕이나 참기 힘든 일을 뜻한다. ‘곤욕’은 ‘치르다, 겪다, 당하다’ 등과 쓰여, ‘곤욕을 치른’, “말 한 마디에 곤욕을 겪었다.”처럼 쓴다. 그러나 ‘곤혹’은 곤란한 처지가 돼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이다. “영어를 못해 곤혹을 느꼈다/곤혹스러웠다.”처럼 ‘느끼다’와 함께 쓰거나 ‘곤혹스럽다’의 형태로 쓴다.

오답 피하기

- ① ‘싸인’은 ‘싸이다’의 활용형으로, 근심이나 수심 등이 마음을 덮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올바르게 사용되었다. 참고로 ‘쌓이다’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겹겹이 포개어 얹어 놓이다’의 뜻이며 ‘쌓다’의 피동사사이다.
- ③ ‘출연하였다’는 연예인이나 예술가 등이 무대나 방송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성악가가 음악회에 나서는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다. 참고로 ‘출현(出現)’은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서 보임’의 뜻이다. (예) 구세주의 출현
- ④ ‘유례’는 ‘같거나 비슷한 예’를 의미한다. 문맥상 ‘세계에 유례가 없다(전례가 없다)’는 표현은 적절한 활용이다. ‘유례’(X)

14.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바로잡은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 불법 체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 외국인 불법 체류! 더는 안 됩니다.
- ② 사료용 교잡종을 재배하면 8월 하순 무렵에 수확할 수 있어 연간 삼모작 재배도 가능하다.
→ 사료용 교잡종을 재배하면 8월 하순 무렵에 수확할 수 있어 한 해 동안에 삼모작도 가능하다.
- ③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녹색 성장 관련 전문가 그룹인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 연구단을 통해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녹색 성장 관련 전문가 그룹인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 연구단에 자문하고
- ④ 가로변 쓰레기통은 결박하고, 현수막 등은 제거함
→ 가로변 쓰레기통은 고정해 두고, 현수막 등은 제거함

14

해설 ④ [문장다듬기, 어법]

결박하고’는 ‘꼼짝 못 하게 묶다’라는 뜻으로, 쓰레기통을 묶어 두는 행위 자체는 중복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박’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결박’은 사람이나 짐승의 몸 또는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동어 묶는 행위이기 때문에 ‘쓰레기통’과 어울리지 않는다. 수정한 문장인 ‘고정’은 물건과 신체에 두루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레기통’과 어울린다. ④는 순화된 표현으로는 적절한 수정이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더 이상’은 ‘더’라는 부사와 ‘이상’이라는 명사가 결합하여 의미가 중복된 경우이다. ‘더’는 ‘계속해’ 또는 ‘그 이상으로’를 뜻하는 말이다. “조금 더 기다리자”에서 ‘계속해’란 의미가 있다. ‘이상(以上)’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만 20세 이상 가능하다”처럼 쓴다. ‘더’나 ‘더는’으로 고쳐 중복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삼모작(三毛作)’은 한 땅에 일 년 동안 세 가지 농작물을 심어 재배한다는 뜻이다. ‘작’에 ‘재배’의 의미가 있어 중복 표현이다. 참고로 ‘연간(年刊)’은 ‘한 해 동안’이라는 뜻이어서 중복 표현이 아니다. ‘연간’은 한자어이고 ‘한 해 동안’은 이를 우리말로 순화한 표현이다.
- ③ ‘수렴(收斂)’은 ‘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함’의 뜻이다. ‘수렴’에 이미 ‘의견’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의견을’을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고로 ‘자문(諮問)’은 ‘의견을 물음’이다. ‘자문하다’가 올바른 표현이며 ‘자문을 구하다’(X)는 잘못된 표현이다.

15. ㉠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의 ‘가치’, 함께할 때 아름답습니다.

- ① ‘말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
- ② ‘굳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
- ③ ‘곧이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
- ④ ‘밭이다’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

15

해설 ③ [이론 문법]

‘같이’는 [가치]로 발음한다.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첫소리 ‘ㅣ’를 만날 때 ‘ㄷ, ㅌ’ 발음으로 변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 사례이다. ‘곧이어’는 [고디어]로 발음되며, 구개음화와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마지] ‘이’는 접미사이다.
- ② [구지] ‘이’는 접미사이다.
- ④ [바치다]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오랫동안 자신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해 왔다. (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 그 결과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나)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 종과 환경 요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체계이다. (다) 각 종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전체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된다. (라) 따라서 특정 종의 감소나 소멸은 단순히 그 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된다. 특히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종이 존재할수록 생태계는 외부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일부 종이 사라지더라도 전체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고, 그 결과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과도하게 이용해 왔다. 이러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인간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단순한 자원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요구를 넘어, 인간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16.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자연 이용은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 ② 생태계의 안정성은 종 간 상호작용과 다양성에 의존한다.
- ③ 생물다양성은 인간과 무관한 문제이다.
- ④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서, 자연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될 수 있다.

16

해설 ② [비문학]

생태계는 수많은 종이 상호작용하는 체계이며, 생물다양성이 생태계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오답 피하기

- ① 인간의 자연 이용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하고 과도한 이용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③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인간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 ④ 인간은 생태계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며,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어 있다는 관점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서술되어 있다.

17. 밑줄에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인식은 생태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17

해설 ① [비문학]

제시된 문장인 ‘이러한 인식’은 앞 문장의 ‘인간이 자신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해 온 것’을 가리키는 지시어이다. (가) 이전 문장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자신을 분리된 것으로 보았다는 개념을 제시한다. 제시된 문장은 그 인식(분리된 존재로 보는 것)이 생태계의 복잡성을 단순화했다는 결과를 설명하므로 (가)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후 이어지는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 그 결과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라는 문장은, 복잡성을 단순화한 결과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흐름을 형성한다.

18. 다음 시의 밑줄 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사용된 표현 기법과 유형이 같은 것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 이형기, 「낙화」-

- 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잇었노라’
- ②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 ③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④ 꽃처럼 붉은 울음

18

해설 ③ [문학 일반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개념인 ‘결별(이별/슬픔)’과 ‘축복(기쁨/행복)’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역설법(Paradox)이다. ③의 ‘소리 없는 아우성’ 역시 ‘소리가 없다’와 ‘아우성(시끄러운 소리)’이라는 모순된 개념을 결합한 역설적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잇었노라’는 실제로는 잊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었다고 반대로 말하는 반어법이다.
- ② ‘내 마음은 호수요’는 원관념(내 마음)과 보조관념(호수)을 ‘~은/는 ~이다’의 형식으로 직접 연결한 은유법이다.
- ④ ‘꽃처럼 붉은 울음’은 ‘울음’을 ‘꽃’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다.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기는 조부의 완고한 고집에 속이 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부의 저러한 태도가 이해가 가기도 하였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 염상섭, 「삼대」-

- ① 인물의 외적 행동만 제시되는 관찰자 시점이다.
- ②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진술하는 1인칭 시점이다.
- ③ 특정 인물의 내면이 중심적으로 제시되는 시점이다.
- ④ 여러 인물의 내면이 자유롭게 제시되는 전지적 시점이다.

19

해설 ③ [문학 일반론]

‘덕기는 조부의 완고한 고집에 속이 상했다’와 같이 ‘덕기’라는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내면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서술하는 방식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제시문은 덕기의 내면 심리(속이 상했다, 이해가 가기도 하였다)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외적 행동만 제시하는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여 ‘덕기’를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1인칭 시점(주인공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여러 인물의 내면이 동시에 자유롭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덕기’의 내면 상태와 심리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도 특정 인물에게 제한된 시점이다.

[2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한 도구이므로, 개발 및 활용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담은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 존엄성 원칙’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인간의 생명이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보조할 수는 있으나, 인간을 수단으로 전략시키거나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둘째는 ‘사회의 공익 원칙’이다. 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포함한다.

셋째는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인공지능은 본래의 의도된 목적에 따라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기술이 인간의 통제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3대 원칙은 인공지능이 단순히 효율적인 기술을 넘어,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0.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 ② ‘사회의 공익 원칙’은 특정 계층이 아닌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 방지는 ‘기술의 합목적성’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 ④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돕는 도구라면, 상황에 따라 인간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

해설 ④ [비문학]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보조할 수는 있으나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오답 피하기

- ① 인공지능 개발 시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인간 존엄성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
- ② '사회의 공익 원칙'은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을 경계하고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 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은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통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필수적인 내용으로 다룬다.

21. 밑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핵심 개념을 제시한 후, 이를 하위 원칙별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대조하여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 ③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분석하며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을 귀납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21

해설 ① [비문학]

이 글은 서론에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의 핵심 가치로 '3대 기본원칙'이라는 핵심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익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라는 세 가지 하위 원칙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구체화하여 설명하는 논지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22.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할머니는 귀를 잡수셔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셔.”라는 말이 있다. 당연히 ‘귀를 잡수시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 이런 말을 쓰는 것일까? 먼저 ‘귀를 먹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귀 먹다’는 귀가 안 들린다는 뜻인데 이때의 ‘먹다’가 ‘음식물을 섭취하다’는 뜻의 ‘먹다’라면 ‘귀를 먹다’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음식물을 먹다’ 외에 ‘먹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나 코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다’의 의미를 가진 ‘먹다’이다. ‘코 먹은 소리를 내다’의 ‘코 먹다’를 생각해 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갑자기 귀가 막힌 듯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다’는 뜻의 ‘먹먹하다’를 생각해 보면 ‘먹다’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의 ‘먹다’의 의미와 관련이 깊은 말은 모음 하나만 다른 ‘막다’이다. ‘귀를 먹는’ 것과 ‘귀를 막는’ 것, ‘코를 먹는’ 것과 ‘코를 막는’ 것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럼 ‘귀를 잡수셨다’는 어떻게 된 말일까? 이는 ‘귀를 먹다’의 ‘먹다’를 ‘음식물을 먹다’의 ‘먹다’로 오해하고 높임말인 ‘잡수시다’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할머니 이것도 잡수세요”와 같이 높임말로 쓰이는 ‘잡수시다’를 채용한 것이다.

- ① ‘귀 먹다’는 ‘귀’와 ‘먹다’로 분석할 수 없다.
- ② ‘귀 먹다’의 ‘먹다’는 ‘음식물을 섭취하다’라는 뜻이다.
- ③ ‘코 먹다’의 ‘먹다’는 ‘귀 먹다’의 ‘먹다’와 동일한 말이다.
- ④ ‘귀 잡수시다’는 ‘막다’와 관련 있는 ‘먹다’의 높임말을 쓴 것이다.

22

해설 ③ [고유어, 관용어]

‘코 먹은 소리를 내다’의 ‘코 먹다’와 ‘귀 먹다’의 ‘먹다’를 나란히 언급하며, 둘 다 ‘귀나 코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어휘임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귀 먹다’는 ‘귀’와 ‘먹다’로 분석할 수 있으며, 제시문에서는 이때의 ‘먹다’가 음식물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귀가 막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의미임을 밝히고 있다.
- ② ‘귀 먹다’의 ‘먹다’는 귀가 막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뜻이다.
- ④ ‘귀 잡수시다’는 ‘먹다’를 ‘음식물을 먹다’의 의미로 오해하여 높임말인 ‘잡수시다’를 잘못 적용한 예이다. ‘막다’와 관련 있는 의미의 높임말을 쓴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먹는다는 뜻의 높임말을 잘못 쓴 것이다.

[2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23. 위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그리움의 정서를 함박눈의 이미지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 ②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은 북쪽에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③ 함박눈은 혹독한 북방의 기후와 날씨를 상징한다.
- ④ 북방은 화자의 그리움이 향하는 고향 같은 곳이다.

23

해설 ③ [현대 문학]

‘함박눈’은 일반적으로 풍요로움이나 포근함, 혹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에서도 함박눈은 화자의 그리움이 향하는 ‘작은 마을’에도 내리는 ‘복된 눈’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화자는 ‘북쪽’을 향한 그리움을 ‘함박눈’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반복하여 강조하며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은 화자가 그리움을 느끼며 북쪽을 향해 눈이 오는지 묻고 있는 공간이므로,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④ ‘북쪽’은 화자가 소중한 대상을 남겨두고 온 곳이자, ‘그리운 곳’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에 화자의 그리움이 향하는 고향과 같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2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표현으로 보아 화자가 말하는 북쪽은 산악지대인 것을 알 수 있다.
- ② ㉠과 ㉡은 모두 북쪽의 지형을 암시하며, 기차로도 쉽게 가기는 어렵다는 암시를 준다.
- ③ ㉢은 그리움의 대상으로서 아주 외진 산골에 위치한다.
- ④ ㉣은 이 세상에 없는 이상향으로서 ‘북쪽’이라는 방향으로만 암시될 뿐 구체적인 실체가 없이 상상 속에서 추상화된 공간이다.

24

해설 ④ [현대 문학]

‘그리운 곳’은 화자가 과거에 ‘너’와 함께 머물렀던 구체적인 공간(작은 마을)을 의미한다. 비록 현재 화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는 화자의 삶과 추억이 깃든 실제적인 지리적 장소이자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 백무선 철길’이라는 표현을 통해 해당 공간이 험준한 산악지대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벼랑과 산 사이로 이어지는 철길은 이동이 결코 수월하지 않은 북방의 지형적 특성을 보여주며, 화자와 그리운 대상 사이의 거리감과 단절감을 암시한다.
- ③ ‘험한 벼랑’과 ‘산과 산 사이’라는 표현을 통해 ‘작은 마을’이 문명과 동떨어진 매우 외진 산골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 표현의 의미는 단어 자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동일한 문장이라도 화자의 의도나 발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 자체는 물론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화 상황에서는 발화되지 않은 내용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자는 모든 정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청자는 맥락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추론한다. 이처럼 의미는 표현된 것과 표현되지 않은 것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 ① 의미 형성에서 맥락과 추론의 역할
- ② 언어 표현의 구조적 특성
- ③ 사전적 의미의 중요성
- ④ 발화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

25

해설 ① [비문학]

이 글은 언어 표현의 의미가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나 발화 상황과 같은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화자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청자가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의미를 파악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언어 표현의 문법적 구조나 형식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③ 사전적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맥락이 의미 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④ 발화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방법이나 화법에 관한 글이 아니다.

2026년 일반군무원 국어 9급 총평

	유형	2026
1	문법	6
2	어문 규정	2
3	어법	2
4	어휘	2
5	한자, 한자어	
6	속담, 한자성어	1
7	비문학 독해	7
8	화법, 작문	
9	논리	
10	문학	5
11	기타	

1. 2026년 군무원 9급 국어 시험 총평

2026년 군무원 9급 국어 시험은 국어의 전 영역을 비교적 고르게 출제하면서도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실제 적용 능력을 함께 평가한 시험이었다. 과거의 기출문제(군무원 국어 시험)를 곳곳에 반영하였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와 내용도 반영하였다. 문법, 어휘, 한자성어, 문학, 독해가 균형 있게 배치되었으며, 단순 암기보다는 개념을 실제 언어 현상에 적용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특히 최근 공무원 국어 시험의 출제 경향인 '실용적인 국어 능력'과 '독해 중심 평가'가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기본 이론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많았다.

2. 시험 난이도 및 특징

전체적인 난이도는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중(中)'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부 문항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답을 선택하기 쉽도록 구성되었으나, 특별히 난도가 높은 함정 문제나 지나치게 생소한 소재는 거의 없었다. 지엽적(枝葉的)이거나 생소한 개념을 출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기본서를 충실히 학습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이한 수험생이라면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3. 영역별 출제 양상

- ① 문법: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단어의 형성, 피동문, 형태소, 음운 변동, 띄어쓰기, 상대 높임법 등 핵심 단

원이 폭넓게 출제되었다. 개념을 실제 언어 자료에 적용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며, 형태소 분석이나 피동문의 성립 조건처럼 수험생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구개음화,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별,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등은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대표 유형이었다.

- ② 어문 규정 및 어휘: 외래어 표기법, 관용 표현, 의미 중복 표현, 순화 표현, 어휘의 의미 구별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특히 '곤욕'과 '근혹', '출연'과 '출현'처럼 의미가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른 어휘를 구별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나타났다.
- ③ 고전 국어 및 국어사: 「훈민정음」 언해본이 출제되었다. 창제 목적, 창제 당시의 문자 수, 현대 국어에서 사라진 문자, '어린 백성'의 의미 등 공무원 시험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출제되었으며 기본적인 작품 이해와 역사적 배경을 학습하였다면 어렵지 않았다.
- ④ 한자성어: 소탐대실, 부화뇌동, 외강내유 등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자성어가 활용되었으며,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 ⑤ 문학: 현대시(이형기의 「낙화」, 이용악의 「그리움」)와 현대소설(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염상섭의 「삼대」)이 출제되었다. 작품의 세부 내용을 암기하기보다는 표현 기법, 상징, 서술 시점 등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 ⑥ 비문학 독해: 사회언어학, 행동경제학, 생태학, 인공지능 윤리, 국어 의미론 등 다양한 소재가 활용되었다. 지문의 길이는 적당했으나 핵심 내용 파악, 논지 전개 방식, 내용 일치 여부, 문장 삽입, 추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독해 능력이 합격의 관건임을 보여주었다.

4. 향후 학습 전략

- ① 문법: 기본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단어의 형성, 품사, 형태소, 음운 변동, 문장 성분, 높임법, 띄어쓰기 등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해하고 기출문제를 통해 적용 연습을 해야 한다.
- ② 어휘 및 어문 규정: 반복 학습이 효과적이다. 관용

표현, 속담, 순화 표현, 외래어 표기 등을 꾸준히 정리하고 예문과 함께 익혀야 한다. 특히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의 차이를 비교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 ③ 문학: 작품 전체를 암기하기보다는 표현 기법, 시적 화자, 상징, 서술 시점, 갈래의 특징 등 기본적인 문학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표 작품은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 다양한 작품을 읽으며 감상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다.
- ④ 비문학 독해: 꾸준한 훈련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으며 중심 내용과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연습을 지속하고, 주제 찾기, 내용 일치 여부, 추론, 문장 삽입 등 대표 유형을 반복해야 한다.

5. 종합 의견

이번 군무원 국어 시험은 기본 개념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에게 유리한 시험이었다.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국어 전 영역을 고르게 평가하였으며, 실용적인 국어 능력과 독해력을 요구하는 최근 출제 경향을 잘 반영하였다. 특히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비문학과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비문학만이 아니라 문학, 문법 등 모든 문제에 지문을 제시하고 있다. 글을 읽고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도 기초 개념을 탄탄히 다지고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 방법이 될 것이다.